정례브리핑

2020.2.10(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2월 10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개성공단 폐쇄 4년인데 개성공단 재개 촉구하는 기자회견 관련해서 열리는데 거기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한미워킹그룹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관광 관련한 논의가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 양국은 오늘 서울에서 알렉스 웡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방한 계기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관광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 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언론 보니까 그런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의심되면 병원진료 받아라,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심환자 언급하는 게 스스로 방역이 뚫렸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신종 코로나 발병 동향 관련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북한의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진자 발표는, 발병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있으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협력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진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이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진전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현안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평양 직통전화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됐는지와요. 그다음에 그동안 혹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오고간 게 한두 개라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시험통화, 개시통화라고도 합니다. 개시통화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모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색이 노력으로 들리는데 노력이라 그러면 어떤 노력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제가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워킹그룹회의에서 장관이 며칠 전에 축사에서도 말씀하신 접경지 문제하고 철도도로 연결문제도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신가요?

<답변> 한미국장급 협의에서는 올해 연초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남북협력구상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접경지대 협력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서 방역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 연구기관에서 북한 방역 여건 불비하다, 이런 지적하면서 남북 간에 방역협력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협력 인도적 차원이기는 한데 이것도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북한에서 요청 왔을 때 왜 인정, 이제 협의시작하면 늦다, 적시지원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미리 받아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방역협력 관련 정부의 입장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부는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렉스 웡 부대표와 통일부 당국자는 언제쯤 접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